

- 주요 뉴스: 미국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39년 만에 최고치 기록해 인플레이션 압력 지속
 - 중국 경제공작회의,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 유지
 - 미국, 북한·중국 등에 반인권 행위를 근거로 경제 제재를 결정
 - 바이든 행정부, 탄소집약적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조달 중단을 명령

- 국제금융시장: 미국의 테이퍼링 가속화 전망에도 주식과 채권 강세
주가 상승[+1.0%], 달러화 약세[-0.2%], 금리 하락-2bp

- 주가: 미국 S&P 500 지수는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요 기업 실적 호조로 강세
유로 Stoxx 600 지수는 영국 경기지표 둔화 등을 반영해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가 예상치에 부합하며 약세
유로화 가치는 0.2% 상승, 엔화는 보합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인플레이션 불확실성 등을 반영해 하락
독일은 유럽 경기둔화 우려와 ECB의 통화정책 완화 가능성이 상존하며 보합

※ 원/달러 1M NDF환율(1181.3원, -0.2원) 보합, 한국 CDS 하락

		12/10일	12/9일	전일대비			12/10일	12/9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4,712.0	4,667.5	0.95%	국채 금리 10y	미국	1.48%	1.50%	-2bp
	유럽	475.56	476.99	-0.30%		독일	-0.35%	-0.35%	0bp
	중국	3,666.3	3,673.0	-0.18%		한국	20bp	21bp	-1bp
	일본	28,438	28,725	-1.00%	CDS 5y	중국	44bp	46bp	-2bp
	한국	3,010.2	3,029.6	-0.64%		EMBI+	-	381	-
	달러지수	96.06	96.23	-0.22%	위험 지표	VIX	18.69	21.58	-13.39%
환율	유로화	1.1313	1.1293	0.18%		WTI유	71.96	70.94	1.44%
	엔화	113.44	113.49	0.04%	원자재	구리	429.1	433.0	-0.91%
	위안화	6.3700	6.3776	0.12%		금	1,782.8	1,775.3	0.42%
	원화	1,181.3	1,174.5	-0.58%					

주: 주가는 미국 S&P500, 유럽 Stoxx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39년 만에 최고치 기록해 인플레이션 압력 지속

- 미국 10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비 6.8% 올라 1982년 6월(7.1%) 이후 최고 수준으로 블룸버그 전망치(6.8%)와 동일. 전월 대비로는 0.8% 상승. 소비 수요 회복과 함께 공급망 차질과 인력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근원 소비자물가의 전년동월비, 전월비 상승률은 각각 4.9%, 0.5%
- 항목별로는 에너지와 자동차 가격 상승이 컸으며 식음료 가격 등도 상승세 지속. 앞서 연준 파월 의장이 물가상승 지속 가능성을 언급한 상황에서 오는 12월 FOMC에서 테이퍼링 가속화를 발표할 것이란 전망도 확대
- BMO 캐피털마켓의 살 과티에리 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이션이 최근 40년래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연준이 테이퍼링을 가속화하고 금리인상 시기를 앞당길 것으로 전망. UBS의 앨런 데트마이스터 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이션이 완만해려면 내년 중반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분석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중국 경제공작회의,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 유지

- 회의에서는 중국 경제발전이 수요위축, 공급 충격, 기대 약화의 3중 압력에 직면해 있으며 코로나 영향으로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도 확대되었다고 지적
- 내년도 핵심 과제로는 과학기술 발전, 개혁개방 지속, 지역 균형발전 강화, 인구고령화 대응 등을 제시하고 인프라 투자와 중소기업 지원 등을 지속할 방침. '공동부유' 달성을 위한 고용 분배, 제도적 장치 마련, 기부 확산 등도 강조

■ 미국, 북한·중국 등에 반인권 행위를 근거로 경제 제재를 결정

- 미국 재무부는 북한 중앙검찰소와 함께 중국, 미얀마, 방글라데시 등 10개 단체와 15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반인권 행위를 지적하고 경제 제재를 발표
- 중국 인공지능 기업 센스타임(SenseTime) 등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되면서 미국 투자자들의 투자가 금지되고, 신장-위구르 지역 인권 탄압에 관여한 중국 관료와 미얀마 군부 인사 등도 제재에 포함

■ 바이든 행정부, 탄소집약적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조달 중단을 명령

- 미국 정부기관은 즉각 탄소집약적인 화석연료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중단하고 청정 에너지 활용을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시

■ 마이크로소프트, AI 기업 뉘앙스 인수를 위한 EU의 반독점 승인을 받을 예정

- Reuters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인공지능 기업 뉘앙스 커뮤니케이션스(Nuance) 인수를 위해 EU의 무조건적인 반독점 승인을 받을 예정
- 마이크로소프트의 뉘앙스 인수 가격은 160억 달러로, 회사의 역대 M&A 중 두 번째로 큰 규모가 될 전망이다. 뉘앙스는 미국 병원 77%와 거래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인수합병을 통해 원격진료 사업을 강화할 방침

■ 제너럴 모터스, 미시간에 전기차 공장에 40억 달러 이상 투자를 고려

- GM은 전기자동차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배터리 공장 건설 등에 4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고려 중. 메리 바라 CEO는 수 주 내로 투자 지역을 결정할 예정이며, 미시간 주의회 의원들은 투자 계획을 조속히 승인해야 한다고 언급

■ BOJ, 이르면 다음주 중 팬데믹 자금 지원을 축소를 결정할 방침

-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크게 개선된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회사채 매입 축소 등이 가능한 상황이나, 오미크론 변이 확산은 변수로 작용할 우려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12/10 현지시각 기준)

- 미국 11월 소비자물가(전년동월비): 6.8%, 전월(6.2%), 예상치(6.8%)
- 미국 12월 미시건대 소비자태도지수: 70.4, 전월(67.4), 예상치(68.0)
- 영국 10월 산업생산(전년동월비): 1.4%, 전월(2.9%), 예상치(2.2%)

■ 주요 경제 이벤트(12/13 현지시각 기준)

- 독일 11월 도매물가지수, 인도 11월 생산자물가, 터키 10월 산업생산 등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41, E-mail jgback@kcif.or.kr